투자전략 | 2026.04.29

원자재 한눈에보는상상인자산전략

UAE의 OPEC 탈퇴 영향력 점검

최예찬 | 경제/원자재/FX
02-3779-3519
yc.choi@sangsanginib.com

QR코드로 간편하게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 채널

UAE, OPEC 탈퇴 발표

4/28 UAE는 5월 1일부로 OPEC 및 OPEC+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하였다. 1967년 이후 약 60년에 걸친 OPEC 회원국 지위 종료이며, OPEC 내 사우디·이라크에 이은 3위 산유국이자 글로벌 원유 생산의 약 4%를 차지하는 핵심 회원국의 이탈이다. 발표 시점은 이란 전쟁의 여파로 호르무즈 봉쇄되면서 OPEC의 3월 원유 생산량이 2,200만b/d(전월대비 -25%)까지 급락한 국면이었으며, 중동 원유 수출 차질이 지속되는 상황이기에 시장 충격은 크지 않았다. 원유 생산능력을 높이는 투자를 진행해온 UAE와 감산을 주도하는 사우디의 누적된 쿼터 갈등이 탈퇴의 주된 이유로 평가된다. 이러한 갈등 속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을 활용해 최소한의 비용(유가 하락)으로 이탈을 단행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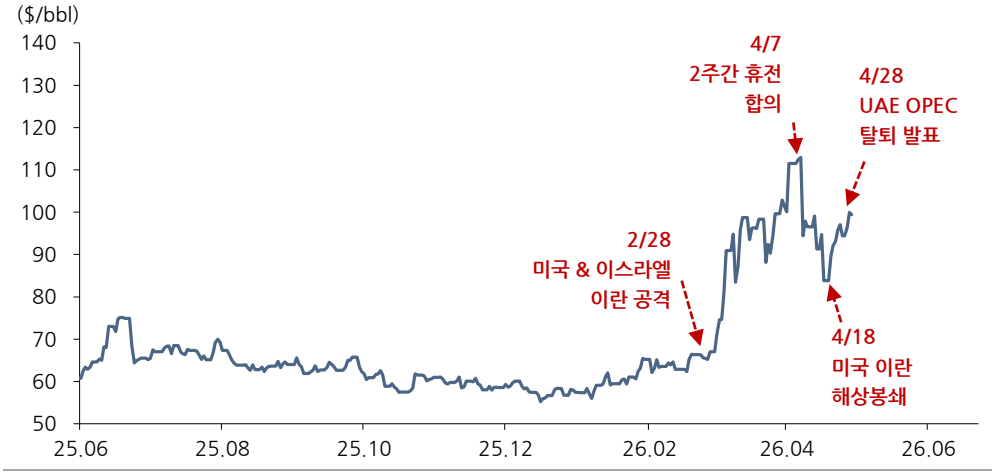
누적된 UAE의 불만

UAE의 현재 생산능력은 465만b/d 수준이며, 2027년까지 500만b/d 목표를 천명한 상태다. 그러나 사우디는 유가 방어 중심의 감산 기조를 고수해 온 상황에서 UAE에게 생산능력 대비 약 20% 전후 감산을 할당해 왔다. 전쟁 직전(2월)까지 UAE의 가동률은 77%로 OPEC 국가들 중 최저치를 기록 중이었다. 다만 사우디와 달리 UAE는 매장량의 빠른 회수 및 에너지 전환기 이전 잔존 가치 극대화를 우선시 해왔다. 더불어 UAE는 두바이를 중심으로 한 비석유부분(관광, 금융 등)의 수입원 다각화로 재정균형유가가 $50/bbl로 사우디($92/bbl)에 비해 크게 낮다. 즉, 양국의 원유 정책과 재정구조가 근본적으로 상이한 것이, 지속된 갈등과 탈퇴의 근본적 원인이 된 것이다.

작아지는 OPEC의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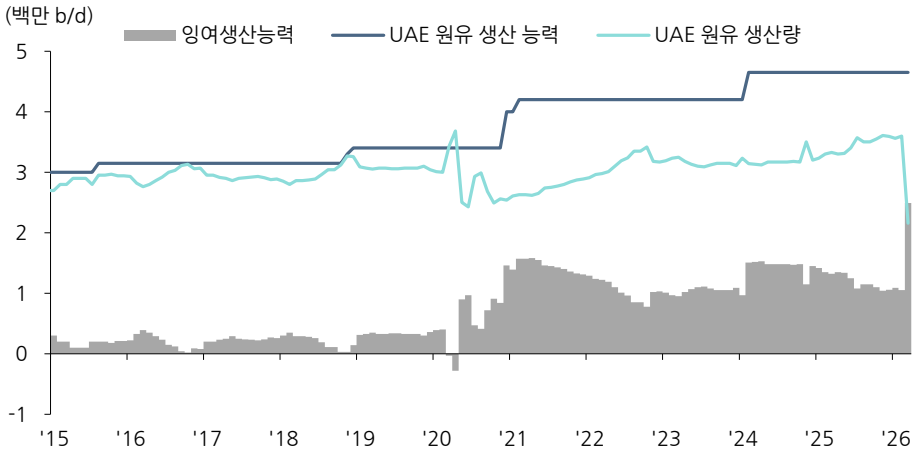
2000년대 이후 OPEC 이탈은 인도네시아('09,'16), 카타르('19), 에콰도르('20), 앙골라('24)에 이은 다섯 번째다. 다만 주요 산유국이 카르텔 외부로 이탈한 사례로는 UAE가 사실상 최초다. 탈퇴 당시 원유 순수입국이던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과거 이탈 사례에서 유가는 단기 평균 8% 내외 하락했으나, 이번에는 전쟁 상황에서의 공급 차질이 지속되어 단기 영향은 흡수되었다. 그러나 종전 및 호르무즈 정상화 시점에는 UAE의 추가 공급 여력 100만b/d이 쿼터 제약 없이 시장에 풀리며 유가의 정상화를 가속할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UAE 이탈 이후 OPEC에서 유의미한 영향력를 가진 국가는 사우디·이라크·쿠웨이트·이란 4개국으로 압축된다. 다만 이란은 OPEC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진행한 바 있어, 카르텔 내 협력이 쉽지않은 상태다. 즉 향후 OPEC+ 의사결정은 사실상 사우디-러시아 양자 협상으로 단순화될 전망이다.

그림 1. WTI 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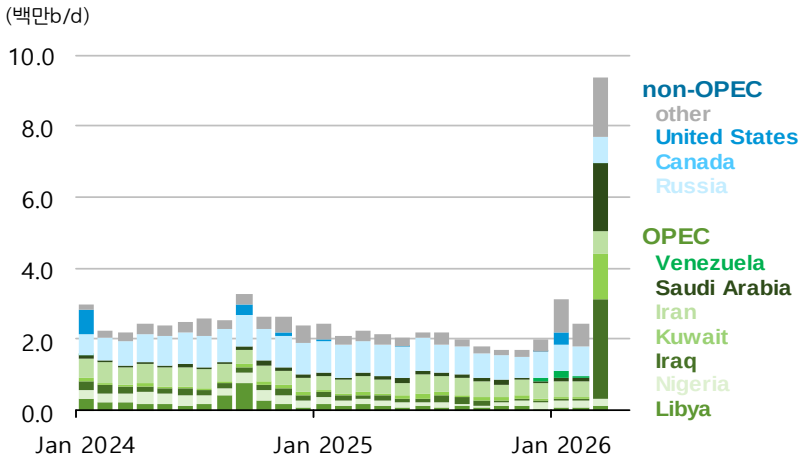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UAE 원유 생산량 및 생산능력, 잉여생산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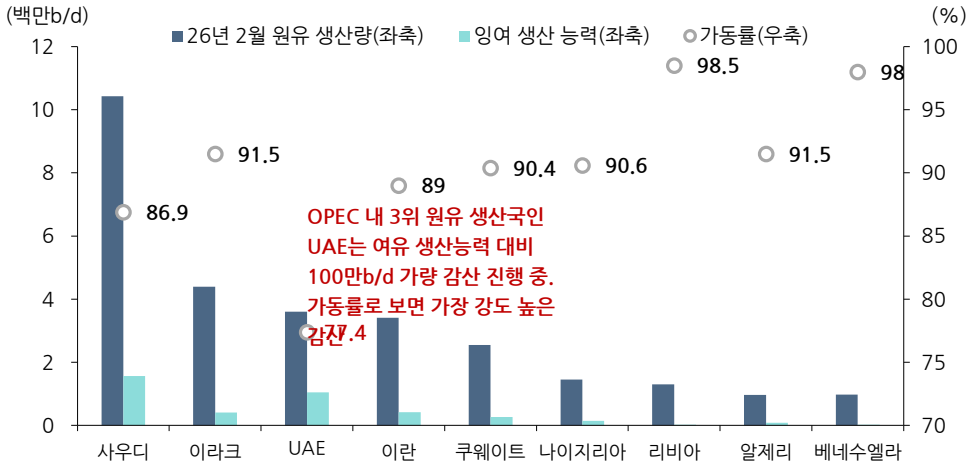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전쟁으로 인한 생산 차질 지속이 UAE 탈퇴에도 유가 하단을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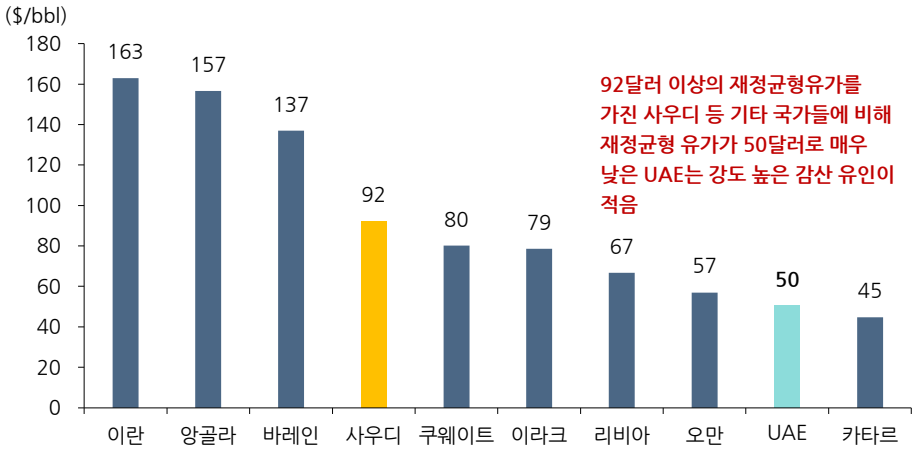
자료: EIA,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OPEC 국가들의 잉여생산능력 비교 (2026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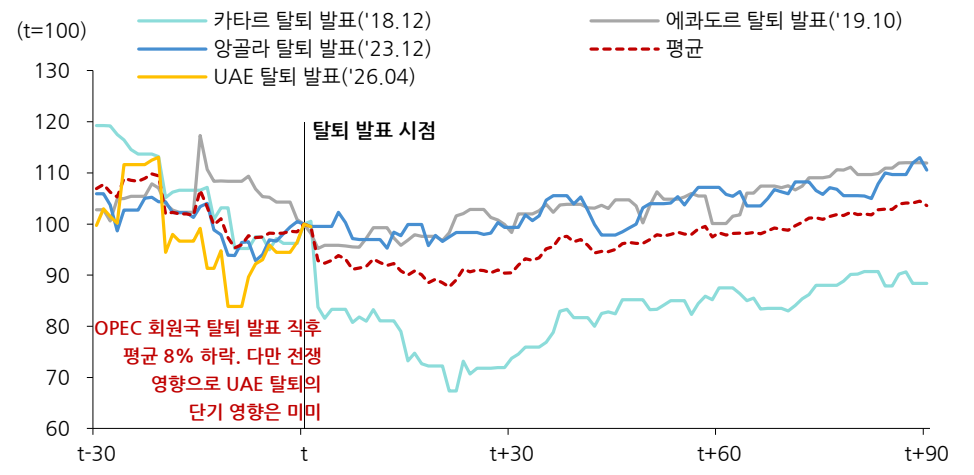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OPEC 국가들의 재정 균형 유가 (2025)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OPEC 주요국 탈퇴 시점과 WTI 유가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최예찬)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